



2면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음 5월 15일) 제352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더메이호텔에서 삼성전자와 14개 시군, 선정기업 등이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14개 시장·군수, 삼성전자 박승희 CR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부사장), 안태용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70개 선정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마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중소 제조기업 혁신 서막 열렸다

전북자치도, 삼성전자 등과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 협약' 체결  
반도체 등 제조업 70개 지원기업 선정... 기업 발굴 등 전주기 제조혁신 공조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혁신의 서막이 열렸다. 전국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70개 선정기업 등이 맞손을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더메이호텔에서 삼성전자와 14개 시·군, 선정기업 등이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14개 시장·군수, 삼성전자 박승희 CR 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부사장), 안태용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70개 선정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 △선정기업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성실 수

행 △도의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원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CEO 포럼은 선배기업으로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대표의 지고취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는 그동안 보유한 제조혁신 노하우를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전수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특화교육 및 선정기업의 사후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올해 70개 기업 모집에 17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시·군별, 유형별로 접수한 결과 특정 유형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4개 시·군의 70개 기업은 식료품 제조기업부터 섬유·고무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기조에 발맞춰 70개 기업 중 60개 기업을 기초단계에 할당했으며, 이 중 40개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다.  
기업발굴부터 현장혁신, 판로개척 등 단계별(기초-고도화 단계)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첨단 제조업을 향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전담 멘토들을 통해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 시·군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완 및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의 제조혁신 경력을 가진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을 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구

축한 바 있다.  
채용된 전담 멘토들은 지난 2월부터 참여 의향 접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하며, 현장을 찾아가 개선사항을 발굴해냈다.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전북테크노파크 내 전용 교육장인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를 조성해 연간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 등의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전북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도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신 1번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업이다"며, "전북형 스마트공장이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기후위기·인권담론 재구성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이틀간 '인권옹호자 포럼'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2일 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와 전북자치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등 여러 인권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권옹호자 포럼은 '기후위기와 인권담론의 재구성'이라는 전체회의의 주제로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포럼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위기와 인권담론의 재구성 △디지털 매개 성범죄/성착취 피해 실태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

력방안 △기후위기와 아동·청소년 그리고 교육 △장애와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치매노인의 인권 △이주정책 변화와 한국 사회 인종차별 양상 등 6개 주제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위기를 넘어 최근 기후재난이라는 표현도 여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인권옹호자 포럼의 다양한 논의와 교류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더욱 인권 친화적인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 전북자치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와 함께 도내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인권옹호자 포럼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국식클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식품클러스터진흥원서 준공식... 농업·식품산업 간 시너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내 유일의 기능성원료은행이 들어선다.  
전북자치도와 농식품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9일 익산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원료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  
안주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들어선 기능성 원료은행의 추진경과를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기능성 원료은행을 구축하게 됐다.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1,872㎡(566평), 지하 1층~지상 3층,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 이날 준공했다.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기능성원료은행 준공식.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원료를 추출 및 보관하고 제품개발 및 지원과 통합 DB구축을 통해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기능성 정보와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기간 중 임시연구소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국산 농식품자원으로 4건의 기능성 원료인증(개발인증형 3, 고시형 1)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주산**

7월 10일, 시원한 여름을 위해

# 선유도 해수욕장

유리알처럼 고운 모래사장,  
맑고 깨끗한 바닷물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기간 : 2024. 7. 10. ~ 8. 18. / 10:00 ~ 18:00